

청렴은 위대한 유산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을 읽고)

나 현성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고아 소년 ‘핍’은 대장장이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 후 영국 런던에서 상류층의 예법과 신사가 될 수 있는 교육도 받는다. 핍은 서서히 상류층의 삶에 적응을 하면서 매번 ‘조’를 창피해 하고 무시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핍은 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때문에 유산 상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제야 핍은 자신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유산 집행자의 보상을 거절한 매부 조에게서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본다. 핍은 조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진짜 위대한 유산을 받았음을 느꼈다.

반부패 청렴 사연(수기) 대상작인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을 읽는 내내 <위대한 유산>이 생각났다. 제목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청렴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아이들을 잘 키워낸 주인공의 삶이 <위대한 유산>의 핍의 경험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주인공. 하지만 가장 열심히 묵묵히 일 했음에도 조장직을 빼앗기고, 해고 될 위기에까지 처한다. 내가 주인공 입장이었다면, 억울한 마음에서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윗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것 같다. 그러면 더 편하고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주인공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누명을 쓰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10년이 넘는 근무를 마치자 회사에서도 주인공의 청렴하고 성실한 모습을 높이 평가해줬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이자 습관이라고 말하던 남편의 말이 주인공 집안의 유언이자 유산이 된 것 같다.

힘들고 고단한 중소기업의 여공으로 정년을 맞이한 주인공. 그렇게 힘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청렴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주인공을 보며 자식들도 청렴한 공무원과 모범 제빵사로 올바르게 자랐다. 할머니가 되어서도 주인공의 청렴함은 변하지 않았다. 잘못 계산된 금액을 바로 치르고 난 뒤 손주에게 ‘멋진 할머니!’ 소리를 듣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며칠 전 아빠가 해 준 말이 생각난다. “청렴하고 올바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준단다. 이런 좋은 기운들이 모여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란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뭐냐고 아빠에게 물었을 때 해 주신 말이다.

청렴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유산이라고 말하는 주인공.

상류사회의 환상에 이끌려 방황하다가 진정한 신사란 무엇인지, 참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지 깨달은 <위대한 유산>의 핍은 같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청렴한 생활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위대하고 멋진 유산이라고!